

2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감추어진 의도를 이해 하려면

백제가 서기 663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궤멸되고, 얼마 안 있어 신라에 합병되어 버리자, 야마토의 지배자들은 그들 자신의 실체(identity)를 새롭게 정의 할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서기 670년에 우선 나라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왜(倭)에서 일본(日本)으로 바꾸었다.¹ 서기 682년경 부터는 그들 자신의 역사를 고쳐 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서기 712년 까지 고사기를 만들어 냈고, 720년 까지는 일본서기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황족들은 태고적부터 자신들이 일본열도를 통치 해 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사기(KC:3)는 덴무(天武: 재위 673-686년)가 다음과 같이 한탄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내가 듣기에 여러 가문의 기록들(帝紀及本辭)이 진실보다는 공허한 거짓 얘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한다.

¹에스턴(Ni: 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일본의 국가 명칭 으로서의 니혼(일본)이, 7세기 전반에 대량으로 건너온 한국 학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 되었다는데 대해 조금도 의심을 갖고 있지 않다. . . . 서기 670년에는 이 명칭이, 이후로부터 사용될 나라 이름이라고 신라에 공식적으로 통고 되었고, 대체로 같은 시기로 부터 중국도 그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만약 지금 당장 이러한 왜곡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얼마 안가서 우리나라의 기반과 왕실의 기초가 파괴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지금, 제왕의 기록들(帝紀)을 선별해서 수록하고, 옛 이야기들을 엄밀히 검토해서 허황한 내용을 삭제하는 동시에 진실을 밝혀, 그 진실된 기록을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¹⁾ 이렇게 해서 사서의 편찬은 시작되었다. 옛 이야기들 가운데 소위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 또 당시 기록들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모두 “교정”되었고, 드디어는 태조신 야스마로(太朝臣安萬侶: 서기 723년 8월 30일 사망)가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만들어 겐메이(元明)와 겐쇼오(元正)에게 각각 바치게 되었다.

에가미(19) 교수가 말하는, “천신(天神)이라는 이민족에 의한 지신(地祇)이라는 토착 원주민의 정복”은, 고사기와 일본서기 속에서 교묘하게 음폐 되었다. 이들 역사책의 일차적 목표는 오오진계(應神系)의 황족에게, 만세일계(萬世一系)라는 형태로 일본 토박이 조상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그 왕조가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위해, 고사기·일본서기 저자들은 백제에서 건너온 호무다(譽田別, 應神)를 두명의 천황으로 쪼갰다: 호무다의 초기 경험을 기초로 해서 진무(神武: 기원전 660-585년)를 만들어 내고, 후기 경력을 기초로 해서 오오진(應神: 서기 390-430년)을 만들어 낸 것이다.²⁾ 그리고 나서는 위지(魏志)에서 나타나는 히미코(卑彌呼) 여왕으로 부터 영감을 얻어 창작을 한, 진구우(神功: 서기 193-269년)라는 존재와 연결 시키기 위해, 오오진의 재위 기간을 120년(二周甲, 서기 270-390년)이나 끌어 올렸다. 그 저자들

¹⁾라이샤워와 페어뱅크(1958: 464)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8세기 사교 방식의 영향을 받은 이들 사서의 저자들은, 중국과 맞먹을 정도로 오래된 역사와 중앙 집권적 통치라는 허상을 만들어 지배씨족의 권위와 세력을 확대 시켜보려고, 일본의 신화와 역사적인 전통을 변형 시켰음에 틀림없다. 후기의 기록들은 그런대로 믿을 만 하지만, 전기의 기록들은 역사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수 있다. . . 하지만 . . . 이들 고사기, 일본서기의 일본 기원에 대한 기록은, 일본역사 거의 전기간에 걸쳐, 엄숙한 사실로 받아 들여졌었다.”

은 야요이 시대에 가야로 부터 큐우슈우로 건너온 오키나가(息長帶日賣命, 氣長足姬尊, 神功)나 미마키(崇神) 같은 실존 가능한 큐우슈우 족장(族長)들 뿐만 아니라, 온갖 가공의 인물들을 창조해서 진무에서 오오진에 이르는 기간을 메꾸어 놓았다.³

이들 역사책에 기록된 얘기들 중의 일부는, 왜곡된 형태로나마 실제로 발생했던 일들을 기록하려 했었던것 일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재구성된 역사가, 처음 나타나면서 부터 일본 사람들을 세뇌 시키는데 이용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허구의 역사는 지배 계급에게 가르쳐 지고 또 신봉 되었으며, 일반 사람들 에게는 진리로 받아 들여 졌다.⁴ 결과적으로 천년이 넘도록 일본의 정치가들, 학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고사기와 일본서기로 부터 정치적인, 또 정신적인 인도를 받고자 했고, 이것은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극단적인 종교적, 애국적 편견을 배양 시켰다.

감무(桓武: 재위 782-806년) 시대의 일본 궁정 사가(史家)들은 천황(天皇)칭호를 만들어 내면서, 신(神)이라는 글자를 꼭 세 경우에 만 사용했다: 진무(神武), 스진(崇神) 그리고 오오진(應神)이 바로 그 세가지 경우다. 천황은 아니지만, 신(神)이라는 글자로 위엄을 부여한 또 하나의 인물은 진구우 황후(神功皇后)라는 존재다. 역사가들은 진무-오오진, 스진, 그리고 진구우를 일본 본토백이로 만들면서, 역사시대 오래전에 신라에서 건너온 스사노오(須佐之男)와 역사시대 직전에 백제에서 건너온 오오진, 두 인물 모두를 아마테라스(天照大神)로 부터 그 연원(淵源)을 찾게 만들었다.

에가미(1964)에 의하면 “신(神)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사후에

³가공의 천황을 만들어 내고, 실존 혹은 허구의 천황들의 생존 기간을 길게 늘어 놓는 행위는 오오진 이후의 기록 에서도 계속된다.

⁴역사책들을 보면 일본서기가, 편찬된 바로 그 해부터 대중들에게 읽혀지고, 조정관리들에게 그 내용이 해설 되었다는 기사가 매우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카타리베(語部)의 암송 같은 관행을 대신 하게 되었다. 일본서기가 편찬된 직후부터 일련의 긍정적인 주석서들이 저술되기 시작했다. (애스틴이 번역한 일본서기의 서문을 참조해 볼 것.)

특별히 만들어진 이들 명칭들은, 천손(天孫) 민족의 정복자, 창건자(創建者)들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사실 에가미 교수는 천신(天神)이라고 부르는 이들 외래인을, 간단히 백제 사람들 이라고 말했어야 옳은 것이었다. 이 백제 사람들은, 그들이 일본으로 올때 함께 가지고 온 사회 구조나, 신화나, 관행을 보면, 그들이 부여와 고구려 사람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광개토왕 비문을 보면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은 자신을 “황천(皇天)의 아들, 추모왕(鄒牟王)”이라고 불렀으며, 광개토왕의 품위와 자애로움은 황천의 품성에 비견 할수 있었다고 한다. 야마토 조정의 사가(史家)들은 고구려 사람들이 자기네 임금을 지칭할때 사용했던 이 독특한 표현을, 단순히 그 황천이란 두 글자의 순서만 바꾸어서, 사용하기로 했었을 지도 모른다.^{5 42)}

바알리(1974: 24)에 의하면,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전능한 아마테라스(天照大神)의 후예인 황족이, 지상세계를 영구히 통치하게 된다는 신화의 핵심은 6세기 말, 7세기에 걸친 개혁의 시기 중에, 순전히 그 당시 왕권을 잡고 있었던 황족의 통치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얘기라고, 20세기 일본 학자들이 명백하게 밝혀냈다”는 것이다. 야마토 조정의 역사가들은, 기원전 660년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황족의 역사를 만들어 내고, 당시에 이미 신라에 정복되어 버린 백제와의 조상(祖上) 관계를 모든 기록에서 말소시킨 다음, 자기들 통치자 가문의 조상은 천신(天神)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황족의 백제로 부터의 도래(渡來)는, 이들의

⁵아오키(1974: 135-136)에 의하면 “쇼오토쿠 태자(聖德太子: 재위 574-622년)가 일본 통치자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때, 천황의 자리를 제문(祭文)을 관장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스메라 미코토 라고 표현 하면서, 한자로는 천황(天皇)이라는 글자를 썼다”는 것이다. 트위췌트와 페어뱅크(1979: 259)에 의하면 당의 고종(唐高宗)이, 중국 역사상 최초로, 서기 674년에 천황이란 거창한 칭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하늘나라로 부터의 신화적인 강림의 형태로 변형 되었다.⁶

우리는 이제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어쩌서 백제와 야마토 왜와의 관계를 사실 그대로 말할 못하고 있는가를,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서 삼국사기(三國事記)도 이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는가를 이해 하기는 힘들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가 백제에 대해서는, 역사책으로서 그저 최소한의 모양만 가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누가 보아도 김부식은 아무런 동정심도 없이 백제역사를 기록했고, 그 얼마 안되는 자신의 포용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백제를 영광스럽게 보이게 할만한 얘기들은, 모두 조직적으로 삭제시켜 버린것 같다. 특히 야마토 왜의 창건에 있어서 백제가 한 역할을 조금이라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들 사이 관계의 아주 중요한 측면을 철저하게 축소시켜 버린것 같다.

가아디너(1988)는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김부식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려면, 그의 가문이 옛 신라(新羅) 지배씨족의 후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 . 이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려(高麗) 왕조의 정당성은 신라의 합법적인 후계자로서의 역할에 달려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고려 이전 한국의 역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라의 역사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관은 삼국사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초기 신라에 대한 사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라에 대한 기록은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훨씬 더 큰 지면을 차지하게 되었다. 김부식은 기원전 57년을 신라의 건국년도로 정했다. . . 기원전 57년 이란 숫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 신라의 전통적인 경쟁상대 백제가 서기 663년에 소멸된 시기로

⁶에가미(1964)에 의하면 “소위 천손강림이란 것은, 사실은 바다 북쪽(남한)땅에서 큐우슈우로의 진출이었다. 즉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따르면, 야마토 조정의 천황들의 조상으로 간주되는 천손(天孫)들이, 한국의 남쪽땅에서 북 큐우슈우로 건너와서 우선 정착을 했다가, 한두 세대가 지난뒤에 킨키(近畿)지방쪽으로 이주했다”는 것이다.

부터, 정확하게 12주기(12周甲, 720年) 거슬러 올라간 년도라는 것이다.”